

# “醫者意也”의 起源에 관한 考察

동의대학교 한의과대학 의사학교실 金 勳

## I. 緒言

東洋의 傳統醫學은 韓中日 三國이 獨自의이고 獨立의인 醫學體系를 豎立한 것으로 규정지을 수 있다. 유구한 역사를 통해 韓中日 삼국의 전통의학은 각기 나름대로 進歩와 發展을 계속해 왔는데, 그 결과물의 하나는 龍大한 醫學書籍의 蓄積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많은 의학서적물 안에는 醫學의 本務이라 할 수 있는 治病·治療에 관련된 내용뿐만 아니라 그 밖의 醫學全般에 연관된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그것은 醫學의 本質을 規定한다든지, 醫師가 지니고 닦아야할 資質과 德目 그리고 공부방법 등을 제시한다든지 하는, 소위 ‘醫道’에 관한 내용이 된다. 그 가운데 의학을 규정하는 것으로 “醫者意也”라는 名句가 있는데, 전통적으로 지금에 이르기까지 가장 흔하고 빈번하게 언급되는 말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러나 論者의 寡聞한 탓인지 그 名句가 어느 때 누구에 의해 시작되어 전해내려 왔었는지 확실하고 자세한 내력을 알 수가 없었다.

이에 論者는 “醫者意也”의 명구가 수록된 文獻을 통해 起源을 찾아보고 그 意味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한다.

## II. 文獻上의 “醫者意也”

### 1. 南朝宋, 范曄 『後漢書·方術列傳』

“對曰 醫之爲言意也. 腠理至微 隨氣用巧 針石之間 毫芒即乖. 神存於心手之際 可得解而不可得言也. 夫貴者處尊高以臨臣 臣懷怖懼以承之. 其爲療也 有四難焉. 自用意而不任臣 一難也. 將身不謹 二難也. 骨節不彊不能使藥 三難也. 好逸惡勞 四難也. 針有分寸 時有破漏. 重以恐懼之心 可以裁慎之志 臣意且猶不盡 何有於病哉? 此其所爲不愈也. 帝善其對. 年老卒官.”<sup>1)</sup>

(郭玉이) 대답하여 말하길 “醫學을 말하자면 헤아려 생각하고서 한다는 것입니다. 腠理는 지극히 미묘해서 人體의 氣血運行을 따라서 巧妙하게 鍼術을 사용하는데, 침을 놓을 때에 조금의

1) 范曄, 後漢書(二十五史點校本), 北京, 中華書局, 1970, p.2735.

차이가 있어도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醫師가 神妙한 鍼術을 행할 수 있는 것은 환자의 미묘한 氣血運行的 變化를 살펴서 마음과 손이 상응할 때(得心應手)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은 스스로 터득할 수 있어도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대저 신분이 高貴한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서 저와 같은 사람들을 상대합니다. 저와 같은 사람들은 두렵고 무서운 생각을 가지고 받들어 모시게 됩니다. 치료를 할 때에 네 가지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여 고집을 부리고 저에게 맡기지 않는 것이 첫 번째 곤란한 점입니다. 자기 몸가짐을 삼가하여 조심하지 않는 것이 두 번째 곤란한 점입니다. 骨節이 튼튼하지 않아 약을 충분히 쓸 수 없는 것이 세 번째 곤란한 점입니다. 너무 편안한 것만 좋아하여 몸을 움직이는 수고로움을 싫어하는 것이 네 번째 곤란한 점입니다. 침을 놓는 곳에는 깊이의 차이(分寸)가 있고, 침을 놓는 때도 일진의 衝破를 피하기 위해 금기하는 날이 있습니다. (신분이 고귀한 사람을 대할 때에는) 두렵고 무서운 생각을 가지고서 (또한 이러한 것들을) 조심스럽게 헤아려 치료를 해야 하니 제 생각대로 다 치료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 병을 치료할 때 무슨 도움이 있겠습니까? 이것이 貴人을 치료할 때 잘 낫지 않는 이유입니다.”라고 하였다. 和帝가 그 답변을 옳게 여겨 납득하였다. 郭玉은 후에 나이가 들어 官職을 그만 두었다.

2. 唐, 孫思邈 『千金翼方·針灸上 取孔穴法第一』

“醫者意也. 善于用意 卽爲良醫.”<sup>2)</sup>

醫學은 생각하고 헤아려서 하는 것이다. 치료에 임할 때에 마음속으로 잘 헤아려야 훌륭한 의사가 된다.

3. 五代後晋, 劉昫 『舊唐書·列傳 第一百四十一』

“胤宗曰 醫者意也 在人思慮. 又脈候幽微 苦其難別. 意之所解 口莫能宣.”<sup>3)</sup>

許胤宗<sup>4)</sup>이 말하길 “醫學은 헤아려 생각하고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생각하는 것에 달려있습니다. 또한 脈의 證候는 그윽하고 미묘하여 그 구별하기 어려운 것이 매우 괴롭습니다. 그래서 뜻으로 생각하여 알 수는 있어도 말로는 표현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4. 北宋, 歐陽修 『新唐書·列傳 第一百二十九』

“或勸其著書貽後世者. 答曰 醫特意耳 思慮精則得之. 脈之候 幽而難明 吾意所解 口莫能宣也.”<sup>5)</sup>

어떤 사람이 許胤宗에게 책을 써서 후세에 남기라고 권하였다. 許胤宗이 대답하기를 “醫學은

2) 孫思邈著·錢超塵主編, 千金翼方詮釋, 北京, 學苑出版社, 1995, p.1556.

3) 劉昫, 舊唐書(二十五史點校本), 北京, 中華書局, 1970, p.5091.

4) 隋唐代의 名醫로 骨蒸治療에 能通함. 陳나라 柳太后가 風病으로 말을 못하고 口噤하여 服藥을 하지 못하자 寢床아래에 黃芪防風湯을 놓고 熏蒸하여 치료하였다고 전해짐.

5) 歐陽修, 新唐書(二十五史點校本), 北京, 中華書局, 1970, pp.5799-5800.

특히 헤아려 생각하고서 하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이 정밀하면 의학의 참뜻을 얻을 수 있습니다. 脈의 증후는 그윽하고 밝히기가 어려워 나의 생각으로 解得할 수는 있어도 말로는 표현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5. 北宋 『子華子·北宮意問』<sup>6)</sup>

“醫者理也 理者意也. 藥者淪也 淪者養也. 腑臟之伏也 血氣之留也 空竅之塞也 關鬲之礙也. 意其所未然也 意其所將然也. 察於四然者 而謹訓于理 夫是以謂醫.”<sup>7)</sup>

醫學은 이치이며, 이치는 헤아려 생각하는 것이다. 藥은 소통시키는 것이며, 소통시키는 것은 養生하는 것이다. (人身에 병이 생기는 것에는) 臟腑에 얽드려 쌓인 것, 血氣가 막혀 머무는 것, 空竅가 막히는 것, 關鬲이 막히는 것이 있다. (이것을) 그렇게 되지 않은 것을 생각하여 알고, 장차 그렇게 될 것을 생각하여 아는 것이니, 이 네 가지를 잘 살펴서 삼가 이치에 맞게 뜻을 푸는 것, 이것을 ‘醫’라고 한다.

6. 元, 朱震亨 『局方發揮』

“古人以神聖工巧<sup>8)</sup>言醫. 又曰 醫者意也. 以其傳授雖的 造詣雖深 臨機應變 如對敵之將 操舟之工 自非盡君子隨時取中之妙 寧無愧于醫乎?”<sup>9)</sup>

옛사람들은 신성하고 정교한 것으로 醫學을 말하였는데, 또 醫學을 헤아리고 생각하여 하는 것이라고도 말한다. 醫學을 傳授받아서 비록 조예가 깊다고 하더라도 적을 마주한 장수나 배를 이끄는 뱃사공과 같이 임기응변할 줄 알아야 하니, 의사가 군자와 같이 때에 따라 가장 알맞은 것을 취하는 오묘함을 스스로 다하지 못하면 어찌 醫學을 하는데에 부끄럽지 않을 수 있겠는가?

7. 明, 王文祿 『醫先·論醫』

“醫者意也. 度時致病者意起之 立方醫之 若天時聖教不同也.”<sup>10)</sup>

6) 舊本은 晉代 程本이 撰成한 책으로 南宋代에 들어와 刊行됨. 원래 子華子는 『莊子』나 『呂氏春秋』에 나오는 인물로 宋代 사람들이 託名한 것으로 생각된다. 『四庫全書總目』에서는 北宋의 熙寧~紹聖年間(1068~1098)에 만들어진 것으로 考證함.

7) 撰人未詳, 子華子(叢書集成初編本), 北京, 中華書局, 1985, p.27.

8) 『素問·至眞要大論』에 “工巧神聖”이라 하여 醫術의 높고 낮음을 지칭하는 말이 나옴. (王琦, 黃帝內經素問今釋, 서울, 成輔社, 1983, p.439.) 『難經·六十一難』에는 “望而知之謂之神 聞而知之謂之聖 問而知之謂之工 切脈而知之謂之巧”라 함. (崔昇勳, 難經入門, 서울, 法仁文化社, 1998, p.287.)

9) 朱震亨, 局方發揮(欽定四庫全書醫家類本), 서울, 大星文化社, 1995, 卷14 p.676. 『東垣十種醫書本』에서는 ‘取中’이 ‘反中’으로 되어 있음. (朱震亨, 局方發揮<東垣十種醫書本>, 서울, 大星文化社, 1983, p.511.)

10) 王文祿, 醫先(古今圖書集成醫部全錄本),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62, 卷12 總論 p.36.

醫學은 헤아리고 생각해서 하는 것이다. 병이 발생한 그 때의 상황을 잘 헤아려 아는 사람은 먼저 뜻을 세워서 立方하여 치료하게 되니 마치 天時의 聖敎(時令)가 같지 않는 것과 같다.

8. 明, 萬全 『痘疹心法·錢氏陳氏立法用藥同異辨』

“醫者意也. 爲工者 不惟其法 惟其意.”<sup>11)</sup>

醫學은 헤아려 생각해서 하는 것이다. 치료를 하는 사람은 오로지 그 法度에만 매달리지 말고 다만 마음으로 헤아려 치료에 임해야 한다.

9. 明, 張介賓 『類經附翼·醫易, 醫易義』

“易者易也 具陰陽動靜之妙. 醫者意也 合陰陽消長之機. 雖陰陽已備於內經 而變化莫大乎周易. 故曰 天人一理者 一此陰陽也. 醫易同原者 同此變化也.”<sup>12)</sup>

易은 바뀐다는 뜻으로 陰陽動靜의 미묘함이 갖추어져 있다. 醫學은 생각하고 헤아려서 한다는 뜻으로 陰陽消長의 기틀에 배합된다. 비록 陰陽이 이미 內經에 具備되어 있으나 그 變化함은 周易보다 큰 것이 없다. 그러므로 말하길 ‘하늘과 사람은 한가지 이치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한가지 이치는 바로 陰陽이다.’라고 하였다. 따라서 醫學과 周易은 그 이치의 바탕이 같은 것으로 함께 변화하는 것이다.

10. 明, 劉純 『醫經小學·序』

“醫意也 臨病立意以施治也. 其書內經載運氣病源 靡不悉備. 候天地之變 究疾病之機 盡調治之理. 此神聖愛人之仁 拯羸救枉 濟物之至道也. . . 嗟乎! 學必本於經 病必明於論 治必究於方 而能變通而無滯 斯能盡夫立醫之意矣.”<sup>13)</sup>

醫學은 헤아리고 생각해서 하는 것으로 환자를 대할 때에 헤아려 뜻을 세워 치료를 베푸는 것이다. 內經에는 運氣와 病源이 실려있어 모두 갖추지 않는 것이 없고, 天地의 변화를 살피고 질병의 기틀을 궁구하여 조리하고 치료하는 이치를 다 하였으니 이것은 신성이 사람을 아끼는 인자함이며, 쇠약하고 병든 자를 구원해 주는 것이며, 만물을 구제하는 지극한 도리이다. 아아! 배울 때에 반드시 經에 근본을 두고, 병을 살필 때에 論에 밝게 알며, 치료할 때에 方에 궁구하여, 능히 변통하고 막힘이 없어야 의학을 하는 뜻을 다할 수 있을 것이다.

11. 明, 李梴 『醫學入門·歷代醫學姓氏』

“或勸其著書貽後世者. 答曰 醫者意也. 思慮精則得之 脈之候幽而難明 吾意所解 口莫能宣也. 古之

11) 原文은 “噫! 醫者意也. 爲上者 不惟其法 惟其意.”로 되어 있음. (萬全, 痘疹心法<萬密齋 醫學全書本>,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p.686.)

12) 張介賓, 類經附翼, 서울, 大星文化社, 1982, p.240.

13) 劉純, 醫經小學(劉純醫學全集本),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6, p.10.

上醫 要在視脈 病乃可識. 病與藥值 唯用一物攻之 氣純而愈速. 今人不善爲脈 以情度病 多其物以幸有功. 譬獵不知兔 廣絡原野 冀一人獲之 術亦疎矣. 一藥偶得 他藥相制 弗能專力 此難愈之驗也. 脈之妙處 不可言傳. 虛著方論 終無人能悟. 此吾所以不著書也.”<sup>14)</sup>

(당나라 許胤宗이 책을 쓰지 않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그에게 책을 써서 후대에 남기라고 권하였다. 그러자 그는 대답하기를 “醫學은 뜻으로 헤아리고서 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는 것이 정밀하면 의학의 참뜻을 얻게 됩니다. 脈의 증후는 그윽하고 밝히기가 어려워 나의 생각으로 解得할 수는 있어도 말로는 표현할 수 없습니다. 옛날에 훌륭한 의사들은 脈을 중요하게 보고 병을 알아냈기 때문에 병과 약이 맞으면 오직 한가지 약으로만 치료하여도 약 기운이 순수하게 작용하여 더 빨리 나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脈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생각으로 병을 짐작하고 약 가짓수를 많이 넣어 써서 요행수로 효과를 보려고 합니다. 이것을 비유해서 말하자면 사냥꾼이 토끼 잡는 법을 알지 못하고 그저 넓은 벌판을 여러 사람이 둘러싸서 혹시 한 사람이라도 잡을 수 있을까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하니 기술이 없는 것입니다. 한가지 약이 우연히 들을 만하다가 다른 약의 억제를 받으면 자기 효능을 다 나타내지 못하게 되어 치료가 어렵게 된다는 것이 나의 경험입니다. 脈의 오묘한 경지는 말로 전하기도 어렵고, 또 헛되이 의학서를 쓴다고 하여도 끝내는 깨달아 알만한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책을 쓰지 않는 까닭입니다.”라고 하였다.

## 12. 淸, 陳修園 『醫醫偶錄』

“醫者意也. 風寒暑濕燥火之疾 針灸藥石調治之方 無非以意行乎其間.”<sup>15)</sup>

醫學은 헤아리고 생각해서 하는 것이다. 風寒暑濕燥火의 六淫으로 인한 모든 질병과 針灸藥石의 조리하고 치료하는 방도에 있어 헤아려 생각하는 것이 그 사이에 행해지지 않는 것이 없다.

## 13. 淸, 尤在涇 『醫學讀書記·徐大椿序』

“文中子<sup>16)</sup>云 醫者意也 藥者淪<sup>17)</sup>也. 謂先通其意 而後用藥物以疏淪之也. 善哉言乎! 醫理在是矣 而意之通實難.”<sup>18)</sup>

文中자가 이르기를 “醫學은 헤아리고 생각해서 하는 것이요, 藥은 소통시키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것은 먼저 생각함에 통달하고 난 후에 약물을 사용하여 소통시키는 것을 말한 것이니 참으로 훌륭한 말이다. 醫學의 참된 이치는 여기에 있어서 헤아려 생각하는 바가 眞實(眞理)에 까지 통달하게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이다.

14) 李梴, 醫學入門, 서울, 大星文化社, 1984, 內集卷一 歷代醫學姓氏 p.140.

15) 陳修園, 醫醫偶錄(珍本醫書集成本),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6, 雜著類 p.1.

16) 隋代 王通의 號. 著書로 『中說』이 있었는데, 弟子들이 스승의 號를 따서 『文中子』로 改稱함.

17) 淪: 漬也 적실약, 煮也 삶을약, 疏淪 소통시킬약. 여기에서는 ‘소통시키다’는 의미로 쓰임.

18) 尤怡, 醫學讀書記,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1, p.7.

14. 清, 周學霆 『三指禪·原序』

“醫者意也. 至於脈理 尤以意會.”<sup>19)</sup>

醫學은 헤아려 생각하고서 하는 것이다. 脈의 이치에 이르러서는 더욱이 뜻으로만 이해될 수 있다.

15. 清, 程杏軒 『杏軒醫案·初刻原序二』

“子華子有言 醫者理也 意也. 蓋理明則意得 意得則審脈處方 無所施而不中 于以稱國工<sup>20)</sup>不難.”<sup>21)</sup>

『子華子』에서 말하길 “醫學은 이치이며, 헤아려 생각해서 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대개 이치가 밝으면 헤아리는 바를 얻을 수 있고, 헤아려 알게 되면 맥을 살피고 처방을 쓸 때에 시술하는 바에 적중되지 않는 것이 없게 되어서 國工이라 칭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16. 清, 趙學敏 『串雅內編·緒論』

“醫者意也. 用藥不如用意 治有未效 必以意求. 苟意入元微 自理有洞解 然後用藥無不驗.”<sup>22)</sup>

醫學은 헤아리고 생각하여 하는 것이다. 단순히 약만 잘 쓰는 것은 증상을 잘 헤아려 생각하는 것만 못하니 치료하고서도 효과가 없으면 반드시 증상을 잘 헤아려 생각해봐야만 한다. 진실로 헤아려 생각하는 것이 정미로운 곳까지 미치면 스스로 이치가 세워지고 완전하게 이해가 될 수 있으니 그렇게 한 후에야 약을 쓸 때에 효과가 없지 않을 것이다.

17. 朝鮮, 許浚 『東醫寶鑑·雜病篇卷之一』<sup>23)</sup>

<用藥·醫不著書>

“唐許胤宗不著書. 或勸之著書貽後世. 答曰 醫者意也. 思慮精則得之. 脈之候 幽而難明. 吾意所解 口莫能宣也. 古之上醫 要在視脈 病乃可識. 病與藥值 惟用一物攻之 氣純而愈速. 今人不善爲脈 以情度病 多其物 以幸有功. 譬如獵不知兔 廣絡原野 冀一人獲之 術亦疎矣. 一藥偶得 他藥相制 不能專力 此難愈之驗也. 脈之妙處 不可言傳. 虛著方論 終無人能悟. 此吾所以不著書也.(入門)

孫眞人曰 醫者意也. 隨時增損 物無定方 眞知言哉.(千金)”

(國譯은 ‘醫學入門’ 등의 인용부분에 前述하였으므로 생략함.)

19) 周學霆, 三指禪(歷代中醫珍本集成本), 上海, 三聯書店, 1990, 卷13 p.5.

20) 國工: 나라에서 가장 훌륭한 匠人, 技術者.

21) 程杏軒, 杏軒醫案, 合肥, 安徽科學技術出版社, 1986, p.4.

22) 趙學敏, 串雅內編(串雅全書本),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8, p.12.

23) 許浚,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87, p.351.

### Ⅲ. 考察

#### 1. 形式的 根據 - 訓詁學的 意味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醫者意也”의 句節은 醫學書籍 이외에도 『後漢書』와 같은 歷史書나 『子華子』와 같은 諸家書에도 수록되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마도 醫學을 규정하는 간단명료한 名句로 폭넓게 學論·引用되어 왔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러나 醫學은 疾病을 治療하고 豫防하는 것이 그 本務가 되겠지만, 醫學을 한마디로 규정하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닐 것이다. 그것은 醫學이 여러 가지 다양한 內面·外面의 形式과 內容 및 意味를 아울러 가지고 있어서 의학전체를 한마디로 규정짓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런데 “醫者意也”의 名句는 醫學을 ‘意’라고 하는 간단한 文字를 사용하여 규정짓고 있다. 어떻게 이처럼 간단하게 규정지을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의문과 또한 무엇을 근거로, 어떤 형식을 빌어 이렇게 간단명료하게 醫學을 규정지을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그 形式的 根據에 대해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문제는 訓詁學에 관련된 訓詁方式의 內容을 고찰해 보면 그 형식적 근거를 살펴 볼 수 있게 된다.

漢字는 表意文字로 글자 하나하나에 형태(形), 소리(音), 뜻(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漢字를 연구하는데도 학문적으로 갈래가 갈라지는데, 漢字의 形態를 研究하는 것은 ‘文字學’이며, 漢字의 소리(音)를 연구하는 것은 ‘聲韻學’이 되며, 한자의 뜻(義)을 연구하는 것은 ‘訓詁學’이 된다<sup>24)</sup>. 이 가운데 訓詁學은 글자의 뜻과 의미를 풀이하는 것으로, 訓詁方式은 다시금 형태(形), 소리(音), 뜻(義)에 의거하여 글자의 뜻을 풀이하고 있다. 이것을 形訓, 義訓, 聲訓으로 나눌 수 있는데<sup>25)</sup>, 그 중 ‘聲訓’의 訓詁方式은 後漢代에 성행했던 것으로 비슷하거나 같은 발음을

24) 車柱環·李章佑, 中國文化概論, 서울, 韓國放送通信大學出版部, 1988, pp.60-61.

25) ‘形訓’은 漢字의 形體構造를 근거로 글자의 뜻을 풀이하는 訓詁方式을 말한다. 즉, 漢字의 구조(形)에 의거하여 뜻을 풀어 해설하는(詁) 방식으로 先秦時代 이전부터 등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무릇 문자로 말하자면, 싸움(戈)을 그치게(止)하는 것을 ‘武’라고 한다.(夫文 止戈爲武)” 『左傳·宣公12年』, “문자로 보자면 그릇(皿)에 있는 벌레(蟲)를 蠱라 한다.(於文 皿蟲爲蠱)” 『左傳·昭公元年』라고 하는 것이 그 예다. 즉, ‘武’는 ‘止’와 ‘戈’를 조합하여 만든 것으로 무력으로 난을 평정한다는 의미이며, ‘蠱’는 ‘蟲’과 ‘皿’이 합쳐진 것으로 그릇 가운데 벌레가 있으니 뱃속에 벌레가 있는 것과 같이 해롭다는 뜻이다. 이와 같은 訓詁方式은 ‘形訓’에 속하는 것이다.

‘義訓’은 실제 그 낱말의 의미를 통해 직접적으로 해석하는 訓詁方式을 말한다. 古書의 일반적인 注解는 모두 義訓에 속하는데, “璧 始也(시작이란 뜻)”, “干 求也(요구한다는 뜻)”, “揆 度也(헤아린다는 뜻)”, “愧 慙也(부끄럽다는 뜻)” 『爾雅』 등등의 것이 해당된다. 물건에 관한 명칭일 경우 형태, 색깔, 용도 등으로 설명하기도 하는데, 『說文解字』에서 “璧 瑞玉環也(天子가 諸侯를 封할 때 주는 둥근 고리모양의 옥)”, “薰 香草也(향기나는 풀)”, “菜 草之可食者(먹을 수 있는 풀)”, “籠 舉土器也(흙을 들

가진 다른 글자를 사용하여 그 뜻을 푸는 것이다. 이러한 ‘聲訓’의 訓詁方式을 차용한 대표적 작품으로는 班固의 『白虎通』이나 劉熙의 『釋名』 등이 있으며, 『說文解字』에서도 이와 같은 ‘聲訓’方式의 例가 많이 보인다<sup>26)</sup>.

“醫者意也”의 訓詁方式이 바로 ‘聲訓’의 訓詁方式을 借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現代中國語에 있어서도 ‘醫’와 ‘意’는 동일한 [yi] 발음을 하고 있으며<sup>27)</sup>, 우리 나라의 漢字發音에 있어서도 ‘醫’와 ‘意’는 [의]라고 하는 동일한 발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中國의 上古音, 즉 秦漢代나 南北朝時代 이전의 ‘醫’와 ‘意’의 발음이 어떠한지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다. 그러나 中國側 韻書인 『唐韻<sup>28)</sup>』이나 『韻會<sup>29)</sup>』 등에서도 ‘醫’의 발음을 “於其切”로 기록하고 있고<sup>30)</sup>, 『唐韻』 『集韻<sup>31)</sup>』 『韻會』 등에서도 ‘意’의 발음을 “於記切”로 기록하고 있어<sup>32)</sup>, 두 낱말이 거의 발음이 같다고 하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또한 우리 나라에 漢字가 유입된 시점은 아마도 漢四郡 설치 무렵이나 혹은 三國時代 初期에는 이미 들어온 것으로 추측되고 있으며, 우리 나라의 漢字發音(Sino-Korean)은 대체적으로 唐나라 혹은 그 이전의 中國側 中古音이 유입되어 우리 고유의 발음체계와 어울리면서 한국식 漢字發音을 형성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sup>33)</sup>. 따라서 우리 나라는 물론이고 中國 上古時代나 中古時代에도 ‘醫’와 ‘意’의 발음이 같거나 비슷했던 것을 충분히 미루어 생각해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살펴보면 “醫者意也”는 같은 발음체계를 빌어 뜻을 풀이하고 있는 것으로, 이것은 訓詁學的으로 ‘聲訓’의 訓詁方式 또는 ‘因音求義<sup>34)</sup>’의 방식에 입각해 醫學을 規定하고 있

어 옮기는데 쓰는 그릇” 등등이 속한다.

‘聲訓’은 낱말의 聲音측면에서 뜻을 해석하는 것으로, 즉 音이 같거나 비슷한 낱말로 풀이하고 그 명칭이 붙게된 까닭을 설명하는 訓詁方式을 말한다. 聲訓의 기원은 상당히 일찍부터 시작된 것으로 생각되는데, 『易經』의 “乾 健也(굳세다는 뜻)”, “坤 順也(온순하다는 뜻)”, “夬 決也(터지다는 뜻)”, “坎 陷也(빠지다는 뜻)” 등등이 있으며, 『孟子』의 滕文公章에서는 三代의 教育機關을 말하여 “庠者 養也(기르다는 뜻), 校者 敎也(가르친다는 뜻), 序者 射也(화살을 쏘는다는 뜻)” 등등이 있다. 아울러 漢末의 劉熙가 지은 『釋名』은 거의 대부분이 이러한 聲訓의 訓詁方式을 사용하여 漢字의 뜻을 풀이하고 있다. (全廣鎭, 中國文字訓詁學辭典, 서울, 東文選, 1993, pp.267-272.)

26) 崔玲愛, 漢字學講義, 서울, 통나무, 1995, p.79.

27) 高大民族文化研究所, 中韓辭典, 서울, 高大民族文化研究所, 1989, p.2834, 2860.

28) 隋代 陸法言이 지은 『切韻』을 바탕으로 하여 唐代 孫愐이 重訂改正하여 만든 韻書.

29) 原名은 『古今韻會舉要』로 元代 熊忠이 지은 韻書.

30) 康熙字典, 香港, 中華書局香港分局, 1987, p.1215.

31) 北宋代 景祐 4년(1037)에 丁度 등이 王命을 받들어 찬수를 시작, 治平 4년(1067)에 司馬光에 의해 마무리되어 완성된 韻書.

32) 康熙字典, 香港, 中華書局香港分局, 1987, p.322.

33) 車柱環·李章佑, 中國文化概論, 서울, 韓國放送通信大學出版部, 1988, pp.66-67.

34) ‘聲訓’의 訓詁方式을 “因音求義”方式이라 칭하기도 한다. (段逸山主編, 醫古文,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6, p.617.)



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 2. 起源에 관한 問題

前述한 바와 같이 “醫者意也”의 句節이 引用·記錄되어 나오는 문헌을 살펴보면, 醫學書籍 뿐만 아니라 그 밖의 歷史書나 諸家書 등에도 두루 나타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다.

그러나 우리 의학 最古·最高의 基本書라 할 수 있는 『素問』이나 『靈樞』에서는 유사한 내용의 언급을 찾아 볼 수 없었으며, 또한 그 밖의 十三經이나 訓詁學의 內容을 살펴 볼 수 있는 『爾雅<sup>35)</sup>』 『說文解字<sup>36)</sup>』 『釋名<sup>37)</sup>』 『廣雅<sup>38)</sup>』 등과 같은 著作에도 醫學을 “意”로 해석하는 用例를 찾아 볼 수 없었다.

우리 나라 『東醫寶鑑』에서도 『千金方』과 『醫學入門』의 문장을 인용하여 “醫者意也”의 句節을 수록하여 놓고 있는데, 前述한 내용 이외에도 “醫者意也”와 有關한 그 밖의 자료를 찾아보면 南朝梁의 陶弘景이 『本草經集注·序錄』에서 “醫者意也. 古之時 所謂良醫 蓋言以意量得其節也.”라고 하였고<sup>39)</sup>, 唐代 趙璘의 『因話錄<sup>40)</sup>』에서도 “許胤宗名醫 人間何不著書 曰 醫者意也 脈之深趣 不可言傳.”라고 하여<sup>41)</sup> “醫者意也”의 內容을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말하고 있다. 그러나 『本草經集注<sup>42)</sup>』와 『因話錄<sup>43)</sup>』을 살펴보면 有關된 內容이 나오지 않는다. 또한 上述한 尤在涇의 『醫學讀書記』에서 文中子가 “醫者意也 藥者淪也”라 하였다고 나오는데, 『文中子<sup>44)</sup>』에서도 이와 같은 內容을 찾아 볼 수 없었다.

歷史적으로 文獻을 聚合하여 살펴보면 郭玉, 孫思邈, 許胤宗 등의 醫家들이 “醫者意也”의 內容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중에 가장 시대적으로 앞선 것은 後漢代에 활동했던 郭玉으로, 그 內容은 醫學書籍이 아니라 歷史書인 『後漢書』에 실려있다.

『後漢書』는 南朝의 宋나라때 范曄이 쓴 歷史書로, <方術列傳第七十二>에 郭玉이 言及하는 말 가운데 “醫者意也”의 內容이 窺보인다. 郭玉에 有關한 『後漢書』의 記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5) 十三經에 포함되는 것으로 訓詁書로는 중국 최초의 것으로 인정된다. 漢代의 鄭玄은 孔子의 제자가 지은 것으로 보았으나, 현대학자들은 秦漢代에 걸쳐 여러 학자들이 訓詁注釋을 채집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36) 後漢代 許慎이 저술한 字典.

37) 漢末에 劉熙가 撰成한 訓詁書.

38) 三國時代 魏나라의 張揖이 『爾雅』를 擴大·增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撰成한 訓詁書.

39) 劉道清·周一謀主編, 中醫名言大辭典, 北京, 中原農民出版社, 1991, p.5.

40) 唐代 趙璘이 撰成한 책으로, 전해 내려오는 逸話나 時事的 事典들의 典故를 歷史書와 비교하여 檢證해 놓음.

41) 諸橋徹次, 大漢和辭典, 東京, 大修館書店, 1959, 卷十一 p.393.

42) 陶弘景, 神農本草經輯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5.

43) 趙璘, 因話錄(叢書集成初編本), 北京, 中華書局, 1985.

44) 王通, 文中子中說(四部叢刊廣編本), 서울, 法仁文化社, 1996.

“郭玉者 廣漢雒人也. 初 有老父不知何出 常漁釣於涪水 因號涪翁. 乞食人間 見有疾者 時下針石 輒應時而效. 乃著針經診脈法 傳於世. 弟子程高尋求積年 翁乃授之. 高亦隱跡不仕. 玉少師事高 學方診六微之技 陰陽隱側之術. 和帝時 爲太醫丞 多有效應. 帝奇之 仍試令嬖臣美手腕者 與女子雜處帷中 使玉各診一手 問所疾苦. 玉曰 左陽右陰 脈有男女 狀若異人. 臣疑其故. 帝嘆息稱善. 玉仁愛不矜 雖貧賤廝養 必盡其心力. 而醫療貴人 時或不愈. 帝乃令貴人羸服變處 一針卽差. 召玉詰問其狀.”<sup>45)</sup> (이후 前述한 “醫者意也”에 관련된 내용이 이어짐.)

郭玉은 廣漢郡의 雒縣 사람이다. 처음에 어느 지역 출신인지 알 수가 없는 老父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항상 涪水에서 낚시질하여 고기를 잡았으므로 涪翁이라 불렸다. 가난하여 사람들에게 乞食하여 먹고 살았으나, 환자를 보면 때때로 침을 놓았는데 즉시에 효과가 있었다. 이에 『針經』과 『診脈法』을 저술하여 세상에 전했다. 제자인 程高가 이것을 어려워 동안 깊이 생각하여 연구하였고, 涪翁이 이에 醫學을 傳授해 주었다. 程高는 또한 자취를 감춰 벼슬을 하지 않았다.

郭玉은 젊어서 程高를 師事하여 醫方, 診法, 六氣變化의 정미로운 기술과 陰陽變化를 헤아리는 기술을 배워 익혔다. 後漢 和帝 때에 太醫丞이 되었는데, 많은 치료효과를 드러냈다. 和帝가 기이하게 여겨 이에 손과 팔뚝이 여자처럼 고운 측근의 신하를 다른 여자와 함께 장막 속에 있도록 하고, 郭玉으로 하여금 각기 두 사람의 한 손만을 진찰하게 하여 어떤 병이 있는지 물었다. 郭玉이 말하기를 “왼쪽 손은 脈狀이 陽이며, 오른쪽 손은 脈狀이 陰입니다. 脈狀에는 男女의 구별이 있는데, 脈狀이 동일한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왜 그러한지 까닭을 모르겠습니다.”라고 하였다. 和帝가 탄식하고 그 훌륭한 醫術을 칭찬하였다.

郭玉은 어질고 자애로우며 잘난 체 교만하지 않아 비록 가난하고 신분이 낮은 하인들이라도 자신의 정성을 다해 치료해 주었다. 그러나 고귀한 신분을 가진 사람을 치료할 때는 때때로 낮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和帝가 이에 고귀한 사람에게 천한 사람의 복장을 입히고 거처하는 곳도 바꾸도록 꾸몄는데, (郭玉이 이 사람을 치료하니) 침을 놓자마자 치유가 되었다. 和帝가 郭玉을 불러 그 이유를 따져 물었다.

郭玉은 涪翁에게 의학을 전수받았던 程高를 師事하여, 診脈과 鍼術에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많은 치료효과를 거둔 當代의 名醫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記錄上 郭玉은 廣漢郡의 雒縣 사람이라고 하였는데, 廣漢은 漢代의 郡名으로 지금의 四川省 일대에 해당되며, 雒은 廣漢郡 소속의 地名으로 지금의 四川省 廣漢縣에 해당된다<sup>46)</sup>. 따라서 郭玉의 出身地인 廣漢郡 雒縣은 지금의 四川省 廣漢縣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이곳은 鄧小平의 出生地이기도 하다.

45) 范曄, 後漢書(二十五史點校本), 北京, 中華書局, 1970, p.2735.

46) 中文大辭典編纂委員會, 中文大辭典, 臺北, 中國文化大學出版部, 1985, 卷三 p.1338, 卷九 p.1348.

또한 郭玉의 生沒年代를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대략의 活動年代를 살펴 볼 수도 있다. 郭玉은 後漢의 和帝 때에 太醫丞이란 관직을 지냈고, 和帝와 관련된 逸話を 통해 볼 수 있듯이 非凡하고 神妙한 醫術을 지녔던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와 같이 郭玉과 관련된 和帝는 서기 88년에 10세의 어린 나이에 卽位하여 105년에 27세의 젊은 나이로 사망한 後漢의 제4대 帝王이었다. 그 在位期間이 약 17년간의 짧은 기간이었으나 歷史적으로 特記할 만한 일이 많았는데, 王充의 『論衡』과 許慎의 『說文解字』가 완성되었고 在位末年에 蔡倫이 蔡侯紙를 완성하여 獻上하기도 하였다<sup>47)</sup>. 그러므로 和帝時에 活動했던 郭玉은 지금으로부터 약 1900여년 전, 後漢 中期 무렵의 인물로 생각된다.

“醫者意也”에 관련된 文獻을 時代別로 聚合하여 고찰해 보면, 出處나 起源을 정확하게 摘示해 놓고 있지 않아 그 시작이나 유래를 단정지어 말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러나 文獻記錄上으로는 郭玉의 언급이 가장 빠르며, 이후 歷代文獻에 기록된 “醫者意也”의 내용도 모두 郭玉에 根據·由來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물론 郭玉 이전에 먼저 다른 사람에 의해 이와 유사한 언급이 있었을 수도 있고, 혹은 當時 이전까지 폭넓게 學論·流行되었던 일반적인 表現이나 名言이었는지도 모른다. 이러한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文獻적으로는 郭玉의 言及이 그 起源이 아닌가 생각된다.

### 3. “醫者意也”의 意味

言語는 어떠한 現象이나 事物의 概念 등을 表現하는 것으로, 필연적으로 일정부분 意味의 局限과 縮小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즉, 言語는 본질적으로 비유적인 것이며, 그 記票的 측면인 文字도 지시하는 사물의 본질을 직접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表象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 따라서 인간이 직관한 바를 表現하기 위해서는 자연히 여러 가지 간접적인 기술 방법이 동원될 수밖에 없고, 文字는 사물의 속성을 논리적으로 개념화한 것이라기보다는 주관적 인식에 의하여 自意的으로 屬性을 再構成하는 記號活動이 된다고 볼 수 있다.<sup>48)</sup>

“醫者意也”는 自意的으로 屬性을 再構成하는 측면에서 醫學을 ‘意’로 규정하고 있다. 郭玉과 同時代 活動했던 許慎의 『說文解字』에서는 ‘意’를 “意 志也 从心音 察言而知意也”<sup>49)</sup>라고 풀이하고 있는데, 이것은 “‘意’는 뜻이다. ‘心’과 ‘音’을 구성요소로 하는 會意字이며, ‘말을 살펴서 뜻을 알다’라는 의미이다.”라고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醫者意也”는 醫學을 ‘意’로 규정하여 ‘뜻(志)’으로 풀고 있는데, 이것은 醫學을 醫師의 ‘뜻’, 즉 醫師가 ‘헤아려 생각하고서 하는 것’이라 말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醫者意也”와 관련한 文獻上的 내용을 살펴보면, 그 ‘헤아려 생각하고서 하는 것’도 두 가지 약간의 다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것은 첫째로 “不可言傳”의 의미이며, 둘째로 “臨機應變”의 의미이다.

47) 陳舜臣, 중국의 역사, 서울, 한길사, 1995, 卷4 p.208, 249, 331.

48) 金權, 漢字는 中國을 어떻게 지배했는가, 서울, 민음사, 1999, pp.5-35.

49) 段玉裁, 說文解字注, 臺北, 漢京文化事業有限公司, 1983, p.502.

“不可言傳”의 의미는 醫學은 말로 표현하거나 전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醫師의 뜻에 의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臨機應變”의 의미는 醫學·醫療에 있어 醫師가 환자를 치료할 때 그 때에 맞게 상황을 잘 헤아려 치료에 임해야 한다는 당위론을 말한다.

첫 번째 “不可言傳”의 의미로는, 郭玉이 “스스로 터득하는 것으로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것(可得解而不可得言)”이라 하였고, 許胤宗이 “말로는 전할 수 없는 것(不可言傳)” 또는 “뜻으로 생각하여 알 수는 있어도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것(意之所解 口莫能宣)”이라 한 것이 그 예이다.

두 번째 “臨機應變”의 의미로는, 孫思邈이 “치료에 임하여 마음속으로 잘 헤아리는 것(善于用意)”이라 하였고, 『子華子』에서 “그렇게 되지 않는 것과 그렇게 될 것을 생각하여 아는 것(意其所未然也 意其所將然也)”이라 하였으며, 朱震亨이 “臨機應變하여 때에 따라 가장 알맞은 것을 취하는 것(臨機應變…隨時取中)”이라 하였고, 王文錄이 “병이 발생한 그 때의 상황을 잘 헤아리는 것(度時致病)”이라 하였으며, 萬全이 “오래된 법도에만 매달리지 말고 마음으로 헤아려 치료에 임하는 것(不惟其法 惟其意)”이라 하였고, 張介賓이 周易과 비교하여 “陰陽消長의 기틀에 배합하는 것, 즉 陰陽變化에 맞춰 운용하는 것(合陰陽消長之機)”이라 하였으며, 劉純이 “환자를 대할 때에 헤아려 뜻을 세워 치료하는 것이며, 능히 변통하여 막힘이 없게 하는 것(臨病立意以施治也…能變通而無滯)”이라 한 것을 그 예로 볼 수 있다.

즉, 醫學을 “不可言傳”이라 한다면 醫學이 보통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지극히 玄妙한 경지의 것이 될 것이요, 따라서 醫學書(Text)는 의미가 없거나 약한 것이 될 수밖에 없다. 반면에 “臨機應變”하는 의미로 해석한다면 의사가 환자를 대할 때 古法이나 醫學書(Text)에만 구애되지 않고 시의적절하게 판단하고 운용하여 치료한다는 뜻이 된다. 그러나 그 내포된 의미가 “不可言傳”이든지 “臨機應變”이든지 간에 치료에 임하는 醫師의 역할을 모두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 공통점이라고 할 것이다.

“醫者意也”는 오래된 名句이지만 지금시대 韓醫學에 관련한 많은 話頭를 새롭게 던져주고 있다고 생각된다. 우리 醫學의 참된 ‘意’는 어떤 것이 되어 할 것인지 깊이 반성하고 성찰해 봐야 할 문제이다. 醫學을 “不可言傳”으로만 생각하고서 상호 언어소통의 단절은 없는지? 혹 옛것을 그대로 추종하여 발전적인 학문적 성과나 축적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또한 “臨機應變”으로만 생각하고 원칙이 없이 너무 自意的 해석만이 난무하는 것은 아닌지?

#### IV. 結論

1. “醫者意也”는 漢代에 성행했던 ‘聲訓’의 訓詁方式을 따라 해석된 것이다.
2. “醫者意也”는 『後漢書·方術列傳』에서 郭玉이言及한 내용이 文獻上 가장 최초로 수록되어 시작된 것으로 생각된다.

3. “醫者意也”는 醫學을 ‘헤아려 생각하고서 하는 것’으로 규정한 것이며, 醫學과 醫療에 있어 醫師의 역할과 의미를 강조한 것으로 생각된다.

### <參考文獻>

1. 范曄, 後漢書(二十五史點校本), 北京, 中華書局, 1970.
2. 劉昫, 舊唐書(二十五史點校本), 北京, 中華書局, 1970.
3. 歐陽修, 新唐書(二十五史點校本), 北京, 中華書局, 1970.
4. 趙璘, 因話錄(叢書集成初編本), 北京, 中華書局, 1985.
5. 撰人未詳, 子華子(叢書集成初編本), 北京, 中華書局, 1985.
6. 王通, 文中子中說(四部叢刊廣編本), 서울, 法仁文化社, 1996.
7. 段玉裁, 說文解字注, 臺北, 漢京文化事業有限公司, 1983.
8. 陶弘景, 神農本草經輯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5.
9. 孫思邈著·錢超塵主編, 千金翼方詮釋, 北京, 學苑出版社, 1995.
10. 王琦, 黃帝內經素問今釋, 서울, 成輔社, 1983.
11. 崔昇勳, 難經入門, 서울, 法仁文化社, 1998.
12. 朱震亨, 局方發揮(欽定四庫全書醫家類本), 서울, 大星文化社, 1995.
13. 朱震亨, 局方發揮(東垣十種醫書本), 서울, 大星文化社, 1983.
14. 王文祿, 醫先(古今圖書集成醫部全錄本),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62.
15. 萬全, 痘疹心法(萬密齋醫學全書本),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16. 張介賓, 類經附翼, 서울, 大星文化社, 1982.
17. 劉純, 醫經小學(劉純醫學全集本),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6.
18. 李梴, 醫學入門, 서울, 大星文化社, 1984.
19. 尤怡, 醫學讀書記,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1.
20. 程杏軒, 杏軒醫案, 合肥, 安徽科學技術出版社, 1986.
21. 趙學敏, 串雅內編(串雅全書本),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8.
22. 陳修園, 醫醫偶錄(珍本醫書集成本),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6.
23. 周學霆, 三指禪(歷代中醫珍本集成本), 上海, 三聯書店, 1990.
24. 許浚,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87.
25. 車柱環·李章佑, 中國文化概論, 서울, 韓國放送通信大學出版部, 1988.
26. 全廣鎮, 中國文字訓詁學辭典, 서울, 東文選, 1993.
27. 崔玲愛, 漢字學講義, 서울, 통나무, 1995.
28. 段逸山主編, 醫古文,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6.
29. 劉道清·周一謀主編, 中醫名言大辭典, 北京, 中原農民出版社, 1991.
30. 康熙字典, 香港, 中華書局香港分局, 1987.

31. 中文大辭典編纂委員會, 中文大辭典, 臺北, 中國文化大學出版部, 1985.
32. 諸橋轍次, 大漢和辭典, 東京, 大修館書店, 1959.
33. 高大民族文化研究所, 中韓辭典, 서울, 高大民族文化研究所, 1989.
34. 金槿, 漢字는 中國을 어떻게 지배했는가, 서울, 民音社, 1999.
35. 陳舜臣, 中國의 역사, 서울, 한길사, 1995.